

새 광화문광장 설계도 확정 됐지만 논란 쟁점들 남았다

세종대왕·이순신 동상이전·촛불집회 관련 내용 반영도 논란



서울 광화문광장이 2021년 차량 중심의 거대한 중앙분리대라는 오명을 벗고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광장·민주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가 21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국제설계 공모절차를 마치고 설계도를 확정했지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쟁점들이 일부 남아 있어 주목된다.

세종대왕·이순신 동상 이전 여부와 촛불집회 관련 내용 반영 여부, 광장 확장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은 향후 공사과정 등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당선작 '과거와 미래를 깨우다(Deep Surface)'에 따르면 경복궁 전면에 '역사광장'이, 역사광장 남쪽에 '시민광장'이 조성된다. 설계자들은 경복궁과 그 뒤 북악산을 광장 어디서든 막힘없이 보게 하고 다양한 대형 행사를 열기 위해 구조물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설계가 관철될 경우 현재 광장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이 세종문화회관 옆과 옛

삼군부 터(정부종합청사 앞)로 이전된다.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상징성 있는 두 조형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당장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심사위원을 맡은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됐다."

위원단의 결론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존치하지만 세종대왕상은 워낙 여러 사람들이 위치나 크기 등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전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은 "워낙 온 국민의 관심이기에 당선자의 의견대로 될 일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논의한 것도 전적으로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현실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광화문광장에 촛불집회 관련

내용이 반영되는 점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설계안에 따르면 광장 바닥에는 촛불집회 이미지를 재해석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원형 문양이 적용된다.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에 차이가 있고 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당선작을 제출한 중앙교 CA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촛불 이미지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패턴으로 들어간다"며 "작긴 하지만 현대사의 의미를 거기에 담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광장 확장에 따른 교통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서울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연계해 도로망 개편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시는 수도권 서북부와 동남부를 고속도로 연결하는 GTX A노선(과주 운정~서울~화성 동탄)의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하보도로 연결되는 광화문역~시정역에 5개 노선(GTX-A,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1·2·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역사가 완성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의견, 공사기간 중 시민 불편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초기에 국토부는 GTX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광화문 역사가 빠진 상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최종적으로 현 단계를 말하면 국토부도 GTX A에 광화문역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에 없던 역사를 시의 요구에 의해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향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도 "광화문 광장과 GTX 광화문역사는 위치가 달라서 한곳에서 계속 오래 공사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광장과 그 지하 부분을 공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사 규모는 크지 않다"며 "공사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친구야 어땠니”...서울 소재불명 예비 초등학생 537명

경찰협조 요청 30명, 지난 11일 19명서 11명 추가

서울 지역에서 560개 공립초등학교 입학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소집 결과 537명 아동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기준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소재 파악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소재불명 학생 수는 537명으로 지난 11일 발표한 2097명보다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알리지 않는 등 단순 오류로 인해 추가 확인된 숫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비소집 미참석자 수는 전체 취학통지자수 7만7659명 중 9705명이다. 현재까지 소재확인이 된 아동은 9188명이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아동 537명 중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아동은 30명이다. 지난 11일 발표한 19명에서 11명이 더 늘었다.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아동들은 학

교 및 주민센터에서도 소재 확인이 안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민센터와 연계해 확인 중인 아동은 458명,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중인 아동은 49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매일 소재 파악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1월말 경이면 경찰청 협조를 아동용 제외하더라도 아동은 소재파악이 전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재불명 아동 집안의 소재확인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재파악을 실시해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용산참사 10년 “억울한 죽음 없게 진상규명”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 농성 전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했다(왼쪽 사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일 옛 사고현장 터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용산참사 10년을 맞아 “억울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밝혀진 것 말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다. 2009년 1월20일 살기 위해 대화를 하기 위해 철거민들은 남일당 건물 망루에 올랐다"며 "재개발에 밀려 대책 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는 없다는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국가권력과 화마에 묻혔다. 경찰

박원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회·입장 밝혀
 “제도개선, 대화·타협·양보까지 함께 노력해야”
 “서울의 역사와 시민 추억이 담긴 곳 보존돼야”
 “울지로 일대 재개발 관련해 전면 재검토 할 것”

에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용산참사가 벌어졌던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

의 무리한 강제 집입은 철거민 다섯 분과 경찰 한 분이 사망하는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7년간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시정을 구현해

왔다”면서 “전입 시장 시절 1000여 곳에 달했던 무분별한 재개발·뉴타운 프로젝트를 최대한 줄였다. 재개발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변호사들을 철거 현장에 투입하는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정의 권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답보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무리한 강제철거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10년 전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은 물론 대화와 타협, 때로는 양보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근 울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와 질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의 역사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은 당연히 보존돼야 한다. 이미 밝힌 대로 울지로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살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